Clarity 법안 통과 시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 점검

[디지털 자산] 양현경 2122-9213 beebee2724@imfnsec.com

Check Point

- 미국 상원 Clarity Act 법안 심사 1) SEC 및 CFTC 관할권 경계 관련하여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 차이 존재, 2) 예산안 등 주요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2026년으로 연기
- CLARITY 법안 통과 시 가상자산 시장 전체 수혜보다는 선별적 재편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미국 상원 Clarity Act 법안 심사 2026년으로 연기

지난 7.17일 미국 하원은 가상자산 3법(Genius Act, Clarity Act,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을 일괄 통과시켰다. 이후 초당적 합의 하에 GENIUS Act(스테이블 코인 법안)는 미국 상원을 거쳐 대통령 서명을 통해 제정되었으나, 나머지 법안인 Clarity Act(가상자산 명확화 법안)와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CBDC 발행 금지 법안)는 미 상원 심사를 통과를 하지 못한 채 현재 계류 중이다.

Clarity Act 하에서 디지털자산이 ①탈중앙화, ②분산 거버넌스, ③임의 제한 불가성, ④투명성, ⑤오픈 네트워크, ⑥비집중적 소유구조, ⑦기술인증과 같은 이른바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품(Commdity)'으로 분류되어 CFTC 관할을 받게 된다. 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증권(Security)'으로 규정되어 SEC의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즉, 과거 SEC의 강도 높은 규제를 받아왔던 디지털자산이라 하더라도,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 요건을 충족할 경우 CFTC의 비교적 완화된 규제 환경 하에서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해지는 구조다. CLARITY Act는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와 SEC·CFTC 간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제 공백 또는 중복으로 인한 혼선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 상원이 CLARITY Act에 대한 법안 심사를 2026년으로 연기하면서, 연내 통과를 기대하던 시장의 실망감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Clarity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계류 중인 원인은 ①SEC 및 CFTC 관할권 경계 관련하여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 차이 존재, ②예산안 등 주요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이다. 특히 SEC 감독 권한을 보유한 상원 은행위원회와 CFTC 감독 권한을 가진 상원 농업위원회 간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으며, 은행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SEC 권한 축소가 투자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안 등 핵심 법안 처리 일정이 우선되면서 CLARITY Act의 상원 통과 시점은 2026년 이후로 지연된 상황이다.

CLARITY 법안 통과 시 가상자산 시장 전체 수혜보다는 선별적 재편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CLARITY 법안 통과 시 가상자산 시장 전체 수혜보다는 선별적 구조 재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규제 체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와 비증권성 디지털자산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①규제 친화적인 미국 중앙화 거래소(CEX), ②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Circle 등), ③RWA 및 토큰화 금융 플랫폼과 ④ 비증권성 디지털 자산 등이다. 특히, 비증권성 디지털자산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가상자산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해 탈중앙화 수준이 높고 특정 발행자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코인·토큰들이 이에 해당하며 해당 자산들은 향후 CFTC 관할 하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①재단의 통제력이 강한 알트코인, ②증권성 논란이 큰 토큰, ③무등록 해외 거래소, ④규제 회피형 플랫폼, ⑤높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 프로젝트들은 오히려 Clarity 법안 통과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6년 CLARITY 법안 통과 전까지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 친화적 구조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자산의 분류 및 감독 체계

자산 유형	정의	감독기관
디지털 상품 (Digital Commodity)	성숙한 블록체인 상에서 탈중앙적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자산	CFTC
증권형 토큰 (Digital Asset Security)	증권법상 투자계약 요건을 충족하며 중앙화된 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자산	SEC
허가된 스테이블코인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지니어스법에 따른 '허가된 발행인'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GENIUS Act 감독기관

자료: LEXOLOGY(SHIN&KIM), iM증권 리서치본부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의 개념 도입

요건항목	설명
탈중앙화 (Decentralization)	네트워크 또는 프로토콜이 단일 개인이나 기업, 특정 이해관계자 그룹에 의해 실질적으로 통제되지 않을 것
분산 거버넌스 (Dispersed Governance)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구조 조정, 토큰 파라미터 변경이 분산된 참여자에 의해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임의 제한 불가능성 (Censorship Resistance)	네트워크 상의 거래 또는 프로토콜 이용이 임의로 제한될 수 없는 구조일 것
투명성 (Transparency)	핵심 프로토콜, 거버넌스 방식, 개발 로드맵 등이 공개된 문서나 웹사이트를 통해 명시적으로 제공될 것
오픈 네트워크 (Open Participation)	누구든지 노드 운영, 검증, 제안 등에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한 구조일 것
비집중적 소유구조 (Non-proprietary Control)	코드베이스 및 거버넌스 구조가 오픈소스로 운영되며, 특정 법인이나 개인이 지식재산권으로 통제하지 않을 것
기술 인증 (Technology Certification)	CLARITY Act 하에 등록된 제3의 기술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것

자료: LEXOLOGY(SHIN&KIM),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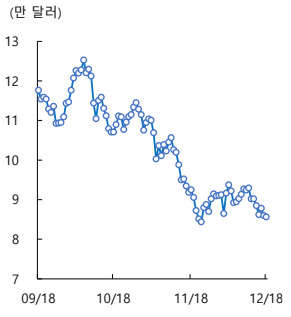
전주 Digital Asset Comment

오라클발 AI 거품론 우려 확대되며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 비트코인 9만달러 반등 시도에 실패하며 8만 5천달러대에서 등락하는 모습 보임. 미국 11월 소비자물가 전망치(3.1%) 하회한 2.7% 기록하였으나 신뢰성에 의문 지속되는 상황. 금일 12월 일본은행(BOJ) 금리 인상 예상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은 BOJ 금리인상을 선반영하며 가격 조정 받는 모습도 보임. 금일 발표될 12월 BOJ 금리결정에 유의, 우에다 총재가 26년 일본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지 확인할 필요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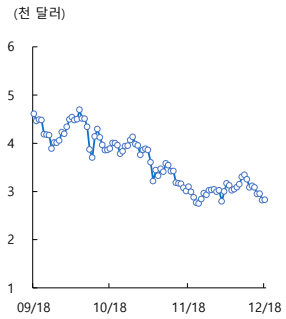
가상자산 News Flow

주요기사	언론사, 날짜
"비트코인은 디지털 라부부일 뿐"…세계 2위 자산운용사의 독한 평가	헤럴드 경제 12.15
美 상원, 암호화폐 규제법안 연기…2026년까지 지연	디지털투데이 12.16
비트코인 내년 전망 '4만~16만달러'… '新화폐냐 투기자산이냐"	디지털타임스 12.16
코인베이스, 주식·예측시장까지 삼켰다…'금융 슈퍼 앱' 선언	12.18 매일경제
미즈호 "예측 시장서 코인베이스보다 로빈후드가 유리"	연합인포맥스 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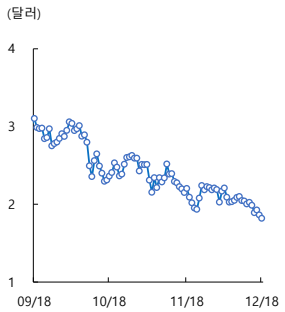
비트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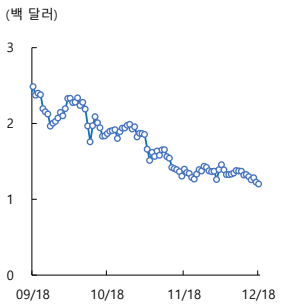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일주일간 수익률 상위 종목(시총 주요 종목 기준)

순위	종목명	1D (%)	1W (%)	1M (%)	1Y (%)	종가 ($)	시총 ($1M)
1	메이커	4.1	3.3	10.4	-24.3	1342.6	732
2	다이	0.0	0.1	-0.1	0.0	1.0	4,309
3	USDC	0.0	0.0	0.0	0.0	1.0	77,427
4	테더	0.0	-0.1	0.0	-0.1	1.0	186,126
5	비트코인 캐시	4.7	-0.1	9.1	6.5	571.1	11,350
6	모네로	-2.1	-0.6	2.4	90.8	414.0	7,533
7	트론	-0.2	-0.7	-4.2	-0.1	0.3	26,426
8	BNB	-1.5	-6.3	-10.9	13.4	830.3	113,136
9	비트코인	-0.4	-7.9	-7.4	-19.6	85582.9	1,689,247
10	랩트 비트코인	-0.7	-8.2	-8.1	-19.8	85158.1	10,568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일주일간 수익률 하위 종목(시총 주요 종목 기준)

순위	종목명	1D (%)	1W (%)	1M (%)	1Y (%)	종가 ($)	시총 ($1M)
1	대시	-5.1	-25.5	-52.3	-19.4	36.4	437
2	액시 인피니티	-8.0	-24.4	-38.2	-89.0	0.8	131
3	베이직어텐션 토큰	1.5	-24.3	24.6	-19.8	0.2	318
4	팬텀	-6.6	-21.5	-41.2	-94.4	0.1	208
5	이오스	-3.6	-19.8	-37.6	-86.1	0.1	69
6	스택스	-3.6	-19.7	-29.8	-89.4	0.2	430
7	샌드	-2.5	-19.4	-37.0	-83.6	0.1	287
8	엔진 코인	0.0	-18.9	-25.2	-87.0	0.0	67
9	헤데라해시그래프	-3.5	-18.4	-29.6	-62.7	0.1	4,457
10	비체인	-4.9	-18.3	-33.8	-82.7	0.0	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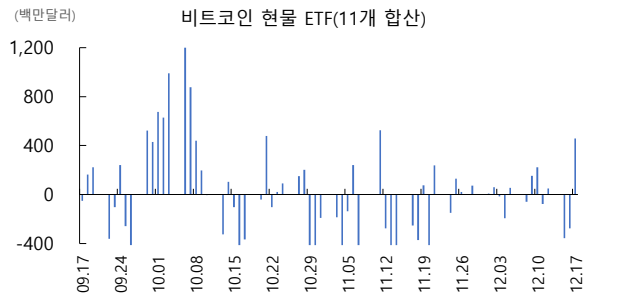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전주 일주일간 거래대금 상위 ETF(주요 종목 기준)

구분	티커	수익률(1W, %)	AUM($1B)	운용보수	거래대금(1W, $1M)	배당수익률	연배당 횟수
비트코인 현물	IBIT	-5.55	66.60	0.25%	11,902	-	-
이더리움 현물	ETHA	-6.75	10.07	0.25%	4,431	-	-
비트코인 선물	BITO	-5.45	2.30	0.95%	2,633	78.05%	월배당
비트코인 현물	FBTC	-5.56	17.57	0.25%	1,615	-	-
이더리움 현물	ETH	-6.66	2.02	0%	790	-	-
비트코인 현물	GBTC	-5.55	14.29	1.50%	883	-	-
이더리움 현물	ETHE	-6.72	2.56	2.50%	782	-	-
이더리움 현물	FETH	-6.80	2.09	0.25%	428	-	-
비트코인 현물	BTC	-5.55	4.19	0.15%	510	-	-
비트코인 현물	ARKB	-5.54	3.26	0.21%	63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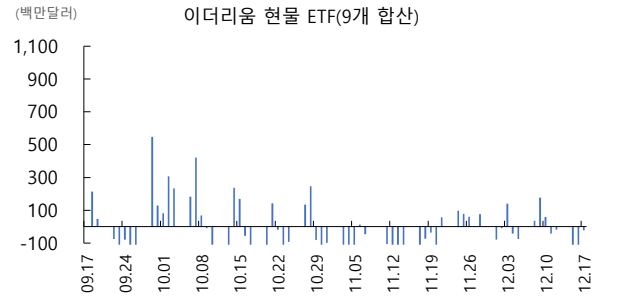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ETF Check,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높은 배당수익률은 비트코인 선물차익을 분배금으로 나눠주기 때문. 코인 상승장에서는 분배금이 많으나 하락장에서는 줄어드는 특징 존재

비트코인 ETF 펀드 플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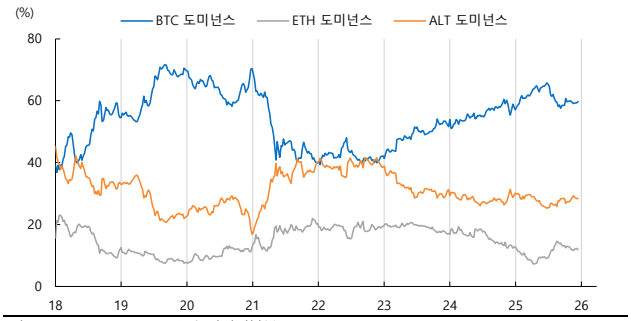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이더리움 ETF 펀드 플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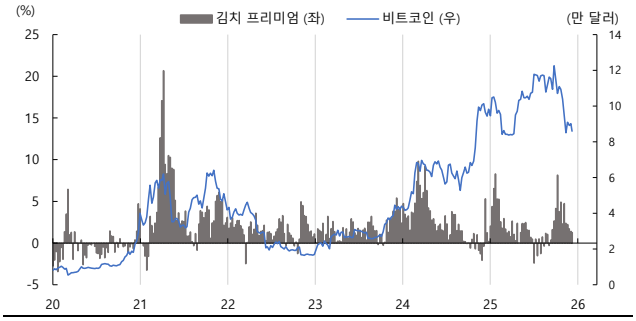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비트코인/이더리움/알트코인 도미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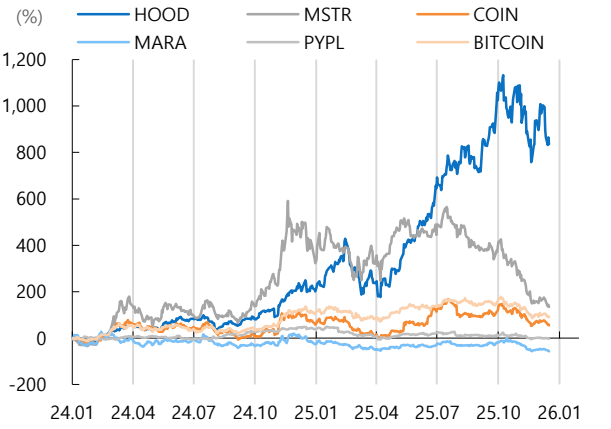
자료: Trading View,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도미넌스란 전체 시가총액에서 해당 자산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비트코인 가격과 김치 프리미엄



자료: Trading View, iM증권 리서치본부

가상화폐 관련 상장사 주가 수익률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코인 및 자산별 상관관계(3M)

구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테더	솔라나
S&P 500	-0.25	-0.26	-0.32	-0.04	-0.35
Nasdaq	-0.17	-0.21	-0.29	-0.02	-0.29
미국채 2Y	0.19	0.18	0.33	-0.15	0.18
미국채 10Y	-0.10	-0.04	0.05	-0.19	-0.07
DXY	-0.52	-0.64	-0.62	-0.37	-0.63
WTI	0.59	0.61	0.75	0.13	0.66
금	-0.60	-0.62	-0.78	-0.13	-0.70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양현경)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